

# 치과계 금연 캠페인 국내 금연 관심 높였다

‘골초왕국’으로 불릴 만큼 우리 나라의 흡연실태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은 남자 2위, 여자 1위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몇 연예인들이 폐암선고를 받는 등 잇단 병마로 인해 충격을 받은 국민들이 금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현재 최고조에 달해있다.

## 정부, 금연분위기 고조 정부청사 등 절대금연구역 지정

정부 역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내년 1월 20일부터 연면적 300평 이상의 정부청사와 모든 의료기관, 보육시설, 초중고교 건물을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천철역 승강장, 실내외를 막론한 체육시설 관람석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안을 지난 4월 19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렇듯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에 힘을 얻은 가운데 민간기구를 중심으로 더 더욱 활발해진 금연 캠페인은 월 550억원으로 예상됐던 건강증진기금(통칭 건강부담금) 부과액을 예상치의 절반수준으로 떨어트리는 등 건보재정안정대책에 차질을 빚는 사태를 빚어내기도 했을 정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활발한 금연 움직임을 두고 “과거처럼 일시적인 금연바람이 부는 것일 뿐 얼마 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몇몇 예측자들의 발언을 무색케 하는 결과도 불러일으켰다.

## 치과계 “금연운동 앞장선다” 4개 단체 금연캠페인 벌여

이러한 사회적 조류에 발맞춰 치협을 비롯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영곤), 대한치과기자재협회(회장 신정필) 등 치과계 4개 단체들도 “국민의 구강건강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전문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한다”는 취지 하에 지난달 3월 30일 코엑스 동관입구에서 공동금연가두캠페인을 펼쳤다.

제24차 아시아태평양치과연맹 서울총회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금연가두캠페인에서 치과계 단체들은 금연스티커, 만화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금연의 위해성을 일반인들에게 상기시키고 담뱃갑 버리기 및 금연서명을 유도했으며 경기도청에서 협조한 치과이동진료차량을 활용해 무료진료활동을 펼치고 가그린, 금연배지, 치약, 칫솔, 자일리틀껌 등 푸짐한 경품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등 대대적인 금연 캠페인을 펼쳤다.

## ‘97 FDI 서울총회시 금연캠페인 벌인 바 있어 지속적 실천운동으로 자리잡기를

치협의 금연캠페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97년 FDI 서울총회 때에도 치협은 금연총회임을 선포하고 금연가두캠페인을 펼치는 등의 사업을 벌인 바 있다.

일간에는 이번 아태 서울 총회를 맞이해 벌였던 치협의 금연캠페인은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시의적절

하게 반영, 국민들이 금연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뜻깊은 실천운동이었다고 평가되어지고 있다.

또한 간접흡연에 노출될 경우 충치 발생률이 현저히 높아지는 등 흡연이 구강건강과 무관하지 않은 만큼 국민의 구강건강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전문인으로서 이번 치과계의 금연캠페인은 그 의미가 크

다고 하겠다.

한편 이번 금연캠페인의 주최자인 치과계 단체인들은 누구보다 먼저 금연캠페인에 임하는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 본 캠페인이 진정한 의미의 캠페인으로 거듭 나도록 해야겠다.

### 금연 스티커 FDI공식 인정

#### 윤홍렬 차기회장 제안, 판매기금 후진국 구강보건에 쓰여



FDI 공식 스티커

세계치과의사연맹(FDI)는 윤홍렬 차기회장이 제안한 금연 스티커(사진)를 FDI 공식 스티커로 인정했다.

지난 3월 16일에서 18일까지

FDI 사무실이 새로 입주한 프랑스 볼테어페니시에서 열린 FDI 회장단 회의에서 윤차기 회장이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던 금연 스티커를 인정하고 이를 오는 5월 31일 세계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전 세계 치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발행키로 했다.

윤홍렬 차기회장은 “크리스마스 스티커이 미국에서 시작

하여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널리 발행되고 있는데 반해 이번 금연 스티커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전세계에 배포, 판매된다는데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금연의 날을 기해 전 세계 치과협회에 우선적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차기회장은 “우리나라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해 준 덕분에 차기회장에 당선되어 이같은 뜻을 펼칠 수 있게 해 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금연 스티커는 10매를 1 세트로 하여 가격은 1불로 정했으며 여기서 거둬들인 기금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국민보건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 치과의사 및 치과인의 금연 행동지침

#### ▲ 치과인 금연 행동지침

- 우리 모든 치과인은 스스로 금연을 실천하며 타인에게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 특히 청소년 흡연자에게는 금연을 적극 권고한다.
- 모든 치과와 치과기공소 및 사무실을 금연구역으로 선포하며 금연스티커를 부착하고 금연 홍보물을 비치한다.
- 모든 공식회의에서는 금연을 시행한다.

#### ▲ 치과의사 금연 행동지침

- 치과의사 스스로 금연을 적극 실천한다.
- 전문 직업인으로서 치과의사는 흡연환자에게 흡연의 위

해성을 교육시키고 금연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

- 특히 청소년 흡연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금연교육을 실시한다.
- 모든 치과 진료실과 대기실을 금연구역으로 선포한다. 잡지를 비치할 경우 담배광고가 있는 부분은 검은 매직펜으로 가위 표시를 한 후 비치한다.
- 진료실과 대기실에 금연 스티커를 부착하고 금연홍보물을 비치한다.
- 치과의사회의 모든 공식회의에서는 금연을 시행한다.
- 치과의사 차원에서의 금연 치료법을 적극 개발한다.